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구일상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관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역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총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장광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선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우리는 흔히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과 천국에 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의 나팔이 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와 같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도 변화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미 124명의 단기선교사들이 나갔으며 전체 2,500명 이상의 선교사 파송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6월까지 매월 첫째 주에 둘째 주에 CMTC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또한 각 선교팀의 팀장을 안수집사들에게 맡겨 더욱 생동감 있는 선교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선교명령이 바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임을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선교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선교는 은총의 자녀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나가야 합니다. “선교! 부족하다” 말고,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선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6일) 제3차 CMTC 훈련 안내(첫째날)

제1강	선교의 성경적 기초	(오후 6:10~7:00)	갈릴리움
제2강	총현교회 비전과 선교정책	(오후 7:10~7:40)	갈릴리움
	전도 특강	(오후 7:40~8:10)	갈릴리움

총현 동산, 천국을 소망하는 곳!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고전 15:20).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대할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총현 동산도 단순히 죽음을 애몽하는 장소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총현 동산을 이용할 때 세상적인 묘지 동산으로 여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때 일부 성도들이 동산에 필요 이상의 돌 화병, 화양무, 조화 등을 가지고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 시에도 꼭 필요한 꽃만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각 개인이 가져다 놓은 장식들은 처음에는 보기에 좋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흉물이 됩니다. 또한 개인이 가져다 놓은 화양무는 주변의 잔디를 죽게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산으로 가지고 온 모든 물품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그에 따른 사용료도 개별 청구할 방침입니다.

현재 총현 동산이 바뀌고 있습니다. 더욱 정돈되고 정숙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동산을 찾을 때 평안한 휴식을 위한 휴게실과 피로를 위한 기도소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총현 동산이 오직 천국만을 소망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마 14:13). 특별히 이번 설 연휴 때 동산에 와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치 마시고, 7면에 있는 가정예배 모범을 참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총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2005년 단기선교 언어훈련 국가 및 장소 안내 (6면 참조)

*설날 가정예배 모범 (7면 참조)

【말씀으로 풍성함 그릇 (금요일집회)】

그리스도의 인성 (1)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함께 그 분이 완전한 인간이심을 철저히 말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탄생하셨다(마 12:43, 눅 25:7, 요 1:14, 딤후 3:16). 또한 그리스도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계셨으며(요 4:2, 인과 같은 성당과 같은 거룩함(눅 25:2), 그리스도는 사람(딤후 2:2), 인(마 19:10), 다윗의 자손(마 10:47) 등 여러 이름을 가지고 계셨으며, 죄를 제하고 인의 모든 한계도 지니고 계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피조되었고 바 고하셨고 목 마르고 도 풀려하셨고 결국 괴로움 가운데 죽으셨다. 이런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예수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며 또한 철저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보통은 이를 한마디로 “그 인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니”(골 2:9)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씀을 전하며 우리는 한때에 빠져든다. 우리가 흔히 깨닫게 되는 모습은 인성이란 말 속에 신성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곧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셨다는 말은 신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말 같다. 만일 예수님이 50%가 하나님이고 50%가 인간이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반쪽과 반쪽을 합하면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고 있지만 인간의 머리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다. 이는 누구를 막론하고 성령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요 또한 완전한 인간임을 깨닫고 있는 것을 인정할 때만 그 사람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 ①그리스도의 인성은 전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세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가세는 궁극적으로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②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합리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또는 저렇게 한 바를 바꾸어 설명하다가 결국에는 어느 한쪽을 강조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을 약화시키게 되고 또 서로 상반되는 부분은 피하려고 하게 된다. ③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어떠한 변종이나 설명도 이 비밀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경 전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계시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요 또한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부인하는 것은 곧 성경을 부인하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을 파괴하는 일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신성만 인정하고 그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축소시키는 것도 결과적으로 같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하고 또한 구원

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전 25-6). 메시야는 하나님이 곧 인간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가 없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곧 인간이신 이 모순을 합리화시키거나 부정함으로써 큰 오류를 범한 예가 많다(요 4:3-3, 요 1:17).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인성 즉 철저한 인간임을 부정하는 자를 책하시라고 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두 세기를 거쳐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가르침이 강고해 오고 그리스도의 인성이냐 신성이냐를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혼란을 일으켰다. 또한 19, 18세기를 거쳐 한때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주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혼란은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지혜나 이성의 합리성을 더 믿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잘못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합리화시키거나 무시해버리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동시에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다.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계셨고 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은 전혀 없었음을 말하고 있다(요 1:2, 요 8:58).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성령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공경을 따서 육체 안에 이 형상 존재하셨다. 그리스도는 원래 신성을 가지신 분이요,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나시니 그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셨다. 그는 아직도 그는 존재로 하나님 동시에 인간이신 분이요,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분이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신 분이라는 개념은 상무 일체론과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가지지 않으셨던 몸을 이제 성영원론 가지고 계시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본질과 현존 또는 영존함에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의 창조의 세계에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오셨다. 예수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요 보았이다. 이 처음도 끝도 없는 초시간적인 계획은 곧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지니 한 존재로 있게 하신데(마 26:46) 여기서의 문구는 무엇보다 신성과 인성의 상호관계를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사역의 긴장한 연합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신비임을 깨달아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한 사람도 이 상호관계를 이해하기에 합당한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신성과 인성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 엄함으로 최고의 철학자나 신학자라 할 지라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계 4)

WHAT DID YOU INHERIT?

¹⁰¹"Then it shall be, when you enter the land which the LORD your God gives you as an inheritance, and you possess it and live in it,

¹⁰²that you shall take some of the first of all the produce of the ground which you shall bring in from your land that the LORD your God gives you, and you shall put [it] in a basket and go to the place where the LORD your God chooses to establish His name. ... ¹⁰³"And now behold,

I have brought the first of the produce of the ground which Thou, O LORD hast given me.' And you shall set it down before the LORD your God, and worship before the LORD your God; ¹⁰⁴"and you and the Levite and the alien who is among you shall rejoice in all the good which the LORD your God has given you and your household." (Deuteronomy 26:1-11)

God gives each of His children an inheritance.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s your Lord, Savior, and Redeemer, then you inherited something. I want to ask you what exactly you inherited. What have you gotten from God since you accepted Jesus? Today's Bible verses show what the Israelites obtained. Unfortunately, when they received their inheritance they did not appreciate it. My God gave them love, mercy, and sympathy. He saved them from Egyptian slavery, and even made them His own children. I know through reading the Old Testament that Israel did nothing but complain. They neglected their inheritance because they did not understand it. I am asking you, right now, what did you inherit from God?

God brought Israel out of Egypt with a mighty hand and an outstretched arm and with great terror and with signs and wonders (v. 8). Have you experienced such things? So many of you think you are in charge, and able to handle the ups and downs of daily life. You do not give God the glory! You think God did not give you your fortune. You keep asking Him for money, and even when He gives you some, you think it comes from your own efforts. So, when I ask you what you inherited from God, understand that people answer differently. What kind of blessings did you receive? What kind of wonderful things do you have?

If you look at your treasure inventory, what will you find? Will you find the things you want? I wonder if you appreciate or complain about what you do have in there. I also wonder what kind of evaluation method you use. People calculate in different ways God's great blessings. Do you draw on world, self, or Bible standards?

So many Christians live a contradictory life. When some terrorists crashed their airplanes into New York's twin towers, one side cried and another rejoiced. The daily news reports that some healthy women choose to abort their babies, some children kill their parents for insurance money, and some married couples murder their spouses. International news reports that in certain countries, like Africa, the Philippines, and Argentina, people work all day long to earn the equivalent of one American dollar. I wonder what kind of inheritance these people can give their own children. All in all, the stress of suffering and affliction bring many to complain and not care about their inheritance.

If you seriously look at your heart right now, what have inherited from God? You are a great Christian! I do not know what you have, but whatever it is should give you assurance. God's inheritance is invaluable, lasting, and unchanging. Our government, society, and even church are depressed and disappointed. The hypocrisy, jealousy, and lying of lives contradictory to God's will, and the pride of arrogance will one day change. God's inheritance never disappears, but only grows sweeter as the years go by. I can tell you that your inheritance is God's love through Jesus Christ. Jesus died on the cross, and gave you a future. This is the foundation of your inheritance.

What kind of attitude do you have toward your inheritance from God? With all your heart, mind, and soul you should love God and your neighbor. This love gives you a godly attitude. God asked each Israelite, Levite and aliens among them to rejoice in all the good that the Lord God had given them and their household(v. 11). If you have received God's inheritance, your attitude needs to change. When Israel cried out to God, God heard, saw, and delivered them(vv. 7&8). He gave them the

best land, a land filled with milk and honey. He completely provided for their every need. God has given you everything. This is not just talk because He has really done it. He delivered you from being a slave to sin, and gave you His inheritance. So, is your attitude one of thankfulness or complaints? He saved you from certain death, and placed you in a wonderful position. God put you on the road to His eternal kingdom, and now you are traveling there. You should only be looking at Him, your Mighty God, Jehovah. You should appreciate and rejoice.

Today's Bible verses end with a description of how you should respond to this wonderful inheritance from God. There is a need for action. Whatever you receive, you should give the first fruit to the Lord. The best thing is giving to the Lord with a humble heart of appreciation. Do you truly feel the wonderful blessings from God? Do you fully understand that everything you have is from God? Come on, do you feel it? Does it make you want to share it with your neighbor? Do you want to tell people about how much Jesus loves you? How He made, saved, and gave you true happiness and eternal life? Do you want to tell them how Jesus died for you on the cross, so that you could become a child of God? Do you want to share all this because you know that everything He has given you is beyond wonderful?

Let me end by sharing a short story concerning a missionary who went to Africa. He stayed in a shabby hotel surrounded by orphaned children who wandered about. One day, after he woke up, his eyes happened to catch a little girl sleeping on the ground. She was very thin, and he could see her boney skeleton. As she awoke, he approached her and they started talking with hand movements. She immediately realized this was a man of God. He pulled out some money from his pocket to give to her in God's name, but she refused it. This surprised him. Instead, she asked him to go to the store for her and buy some milk, which he did. He returned from the store with a carton of milk, and she drank it down so happily. She explained to him that the store did not allow her to come in because she was poor. They would punish her if she tried because they assumed she would steal. So many people rejected this poor little orphan girl. Everyday the missionary woke up, he would go to the store to buy this little girl some milk. She was so happy to see him. They would Touch each other's hands and laugh together. She knew this man loved her. When he had to leave the country, he knew he could never forget her. He always prayed to God for this little girl. He asked God to handle her life until she left this earth. He prayed for her to understand God's love, the love of Jesus. He asked that she be placed in Jesus' hand because His hand touched her already, and she felt God's love. Even though they never verbally communicated, they still talked biblical love and fellowship. The missionary thanked God for letting him meet this beautiful little girl, so that he could feel His love and share it with her.

My dear friend, do you realize what you have inherited. Are you sharing it with poor souls? This is the first Sunday of Lent. As you spend time over the next forty days thinking about the suffering of Jesus, remember that God gave you His Son. You received the best inheritance. Through Jesus, you became God's child. Please count your treasure as God's love, and let your attitude show appreciation. In His grace, you are responsible to share His love. ■

【다들 주일 설교】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 “¹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알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²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땅주인에게 주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을 가리고 가서...
³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신 26:1-11)



김성만 목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주, 그리고 구원자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것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기업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또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이후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지만, 그것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고 자기 자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기보다는 항상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업이 무엇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소홀히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온 위업과 이성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8절).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으며 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혼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요 경과 주시면, 스스로 노력해서 그 돈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제각각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종류의 이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세상에 기초한 사람들의 기업

자신의 재산 목록을 살펴보면, 거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산 목록을 보면서 그 것들 때문에 감사하기 어떤 불행한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또 저는 여러분이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하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십시오! 아니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를 타고 충돌하는 창자가 일어났을 때, 한 쪽은 침묵에 잠겨 울었지만 다른 한 쪽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또한, 신재 강간한 여성들이 낙태를 결심하고, 어떤 어린이들은 보형금을 내 타라고 부모를 살해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를 살해하는 일이 날마다 신문에 머릿기사로 실립니다. 국제뉴스를 들어 보면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에서는 군로자들이 하루 종일 일해서 얻는 수입이 미화1달러밖에 안 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대체로 그들과 절망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고 자신의 기업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기초한 성도들의 기업

바로 이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업으로 받으셨는지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큰 은총을 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된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기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결핍이 없고, 영원히 지속되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심지어 우리 시대의 교회도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위선, 질투, 거짓과 교만이 가득한 삶, 곧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삶은 언젠가는 변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흐를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기업의 기초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삶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명하시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의 중에 우거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11절)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여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들의

비참함을 보셨으며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7,8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 곧 골짜기와 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늘의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의 종된 신분에서 여러분을 구원해냈고 자신의 기업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을 받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감사의 삶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사랑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고 여러분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길에 여러분을 두셨고 지금 여러분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은총을 전하는 삶

오늘의 본문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기업에 대하여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한 마디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좋은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축복들을 정말로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그 은총을 전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참 행복과 영생을 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또 그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정말 놀랍고 놀라기 때문에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으십니까?

선교사와 소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던 어느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그는 초라한 호텔에 묵고 있었는데, 그 호텔 주변에는 길거리를 행회하는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이 깬 그는 어떤 소녀가 길바닥에 누워 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녀를 너무 나팔아 일어나서 뼈가 앙상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소녀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선교사는 그 소녀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즉각 깨달았습니다. 선교사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소녀에게 건넸 주었습니다. 그러나 소녀는 한참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 소녀는 한 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가게에 가서 우유를 좀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는 소녀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선교사가 우유를 사오자 소녀는 너무나 행복하게 우유를 다 마셨습니다. 소녀는 선교사에게 속삭임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 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게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면 도둑맞으려는 줄 알고 일단 잠에서 깨워를 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난한 고아 소녀를 무시했습니다. 선교사는 매일 아침마다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다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소녀는 선교사를 볼 때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웃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선교사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교 사육이 끝나고 그녀를 떠나야 할 때 되었을 때 선교사는 그 소녀를 절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기도할 때 소녀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 기도 그 소녀의 삶을 돌보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그 소녀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미 여러명의 손길이 그 소녀를 이루었습니다! 그 소녀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소녀가 여타의 돌봄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몇몇 영어지 어지 때문에 적힌 이야기를 나는 수는 없지만 정말 말씀을 통한 사랑과 교제를 계속 기겼습니다. 선교사는 소녀와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소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불행한 영혼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날은 사순절의 첫 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주셨음을 마음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한 은총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보여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책임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롬 8:12-14)

우리는 은총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은총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 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롬 8:12). 어떤 빛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는 빛이다(롬 8:1).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은제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을 열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갈 5:16a). 성령을 좇아 행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어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b). 우리는 잘못된 줄 알면서도 사람의 말을 듣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욕망, 인기를 얻는 말만 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인하여 죽을 몸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롬 6:12). 성육태로 살면 죄를 짓게 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 죄의 종이 된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롬 6:14). 율법은 단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할 뿐이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절절히 깨달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들어야만 한다. 죄의 문폐를 고백하고 성령님이 주시길 해야 한다. 죄가 주관하지 않는 삶은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다. 공로, 거룩함, 견문을 통해 자신을 위장하며 십자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은총의 삶, 은총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이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 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롬 8:12). 우리는 빛진 자이다. 빛진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자신의 사욕을 버려야 한다. 십자가의 은제로 충만해야 한다. 나의 의지, 공로, 인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세상의 것이다. 이 세상의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따르는 자들이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다.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 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죄의 문폐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자랑, 인격, 교만, 사립 등 자기의 영광으로 모여 있다. 이 땅에서의 행태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십자가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죄밖에 없으므로, 십자가만이 커야 한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 예수 안에 참 진리가 있다. 오히려 고대 안에 진리가 있다면 그리스도들을 팔바치는 자들이 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당시의 성전 안의 종교인들처럼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 "죄에서 해방되어 우리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롬 6:18). 은혜 안에서 들어야만 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롬 8:13). 자신의 욕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흐린다. 어렵게 한다. 따라서 십자가에 자신을 포기하면 살 수 있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이 되서는 안 된다. "신령한 이는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전 2:15). 육적 말로만 들어야 한다. 공로, 경험, 도덕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회개가 필박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자라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좇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니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요 16:23).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말씀이 조맹되지 않을 때 십자가를 무시하게 된다.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찾을 수 없다"(눅 18:8) 참고로 한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잊지 말자.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뿐이다. 십자가를 좇아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성령을 좇아 살아야 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갈 5:16). 때로 이 말씀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한다.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다르기 때문이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항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 하게 하느니라"(갈 5:17).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령과 육체를 섞어서 안 된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한 우리는 모든 육체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가 드러나야 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은총의 삶은 새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지다는 의미가 아니다. 새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우리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 8:9).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심 본임을 믿자.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안수집사 칼럼

2005년 총현교회 집사회



박성명 (총사회 회장)

2005년 올해도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사람들을 집사로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성경은 집사에 대하여 '사도행전 6장'과 '디모데전서 3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라...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일곱이 전사의 일과로 갈라타"(행 6:3-15).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인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단 담력을 얻느니라"(딤후 3:8-13). 이와 같이 성경에 쓰인 집사의 자격과 성령을 살피면서 세상 부족함을 더욱 느끼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때에 하는 격정이 앞서서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들인가?", "누가 지혜와 천사와 같을 수 있을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늘 간직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그저 부끄러움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자보다 부족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믿음으로 용기를 갖고 충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한다.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지휘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단 담력을 얻는" 2005 총현교회 집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첫째 목표는 단기선교

총현교회 집사회의 가장 중요한 2005년 목표는 이번 해에도 교회의 최우선 사역인 단기선교이다. 2,500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할 예정인 올해는 특히, 장로나 목사들이 팀장을 맡았던 예전과는 달리 안수집사들에게 담당 임무를 맡기기로 결정하였다. 향후 모든 안수집사들이 팀장으로서 사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집사회는 올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한 새로운 사역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선교를 위해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한다.

올해 신설 교회조직인 '자원봉사부' 중심 역할도 필수

올해부터는 '자원봉사부'를 교회 정규부서로 신설하고 '성도들의 자원봉사'가 본격화된다. '자원봉사'는 조직화하여 말 그대로 성도들이 '자원하여' 봉사에 참여하는 부서이다.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과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 많은 성도들의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교회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집사들이 먼저 모범을 보일 일기에 '집사들의 자원봉사'는 올해의 중요한 과제이다.

집사의 고교 입구에 충성하는 한 해

주제, 전도, 교육 등 성령에 기록된 집사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집사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2005 집사회 조직을 4개 지교회 나누어 새롭게 운영한다. 회원의 수가 4대~17대에 걸쳐 270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기존 총현교회에서 지교회 운영을 강화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회원들의 주거지별로 1교회(1~5교구), 2교회(6~10교구), 3교회(11~14교구), 4교회(15~18교구)로 운영되던 나누어 운영집사도 병예외원으로 각 지교회 소속한다. 지회 회장, 지회별 원예회(원 7회), 부부 기교회, 노방전도, 경조사 교제 등이 있다. 전체 행사는 총회 연합원회, 집사순회, 연합모임 부부 찬양, '구제 선교 교육' 등의 지원' 24시간 연속교회 등이 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많은 인물이 아름답게 완수하는 2005년 총현교회 집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선교 후기

미리 준비하셔서

사역지에 도착했을 때 지난 6개월 동안 익혔던 단어들이 들려왔다. '여기가 우리에게 주신 산지구'라고 생각하니 긴장되었다. 은혜 중에 훈련했으니 은혜 중에 선교를 마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막상 선교 현지에서 도착하니 준비되지 않음이 어둡함으로 나타났다. 상대방의 질문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설명할 수 없고, 또 그 질문에 지체롭게 답변할 수 없었다. 평가회를 통해 그 날에 겪었던 어려움과 부족함을 회개하며 우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각자의 사역 방법을 나누며 말씀으로 다음 날 사역을 준비했다.

우리 팀의 사역은 이슬람과 힌두 마을에서의 축조전도가 중심이었다. 마을 입구에 도착하여 기도로 성령님의 동행을 간구하고 복음을 전한 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찬송을 부르고 다른 마을로 이동했다. 영어 통역을 하는 신학생과 사역을 하였는데, 그는 이슬람 마을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마을 앞에서 기다리더니 이를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내게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슬람 마을에도 우리와 함께 다니게 되었다.

한 이슬람 마을에서 위협을 느껴 재빨리 빠져 나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 차로 약 30분을 이동하면 힌두 마을에서 사역을 할 적 있다. 그 때 어떤 무슬림을 만났다. 그분의 집으로 초대를 받아 뒤편가마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주님은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황급히 빠져 나온 그 마을로 우리를 다시 보내셨다. 우리는 회개하고 그곳에서 찬양을 했다.

"이 복음을 읽으면 구원을 얻는다" "알라도 예수도 모두 같은 신이다."라고 말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만 믿겠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하던 것이 생각났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것들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그 사역을 은혜 중에 감당케 하셨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를 통해 주님께서 선교의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는다. 또한 온 교회가 지속적으로 십자가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한다.

안혜영(집사, 17교구)

5개월간의 A국 사역을 마치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르고 연약한 우리를 택해 주셨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사람의 의지가 아닌 오직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그 낯선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당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하셨다. 조금이라도 만 생각을 하거나 딴 길로 가려 하면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막아 사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 주셨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뿐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었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참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그 땅은 가는 곳 어디나 집집마다 우상이 들끓고 넘쳐나는 곳이었다. 어디를 가든지 우상을 모셔놓고 그 곳에 복을 비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상 숭배자들... 온갖 죄악과 우상이 넘쳐나는 그 땅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땅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땅의 영혼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곳에서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을 만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현지 영혼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 아직은 확실한 믿음이 없었지만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사랑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세히주신 현지인 일꾼들을 보면서 그 땅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다. 할렘루!

이서 속히 그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넘쳐나며 십자가 복음이 온 땅을 덮게 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우리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현지 영혼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및 만민의 일어나서 주님께로 그 영혼들을 옮겨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다. 아니 우리들은 사랑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셨다.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기쁨으로 받게 하셨다.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택한 백성에게, 주님께서 전하라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우리들이 몇 개월의 시간 동안 만나고 사랑을 나누었던 그 사람들... 비록 우리들은 떠나왔고, 우리들은 곧 잊겠지만 우리가 전해 준 예수님만은 잊지 않길 기도한다. 또한 그들 가슴 깊은 곳에 십자가가 새겨지며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길 기도한다.

이슬미(대학부)

선교 후기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러다나 올무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시 126:5-6).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선교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곳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소식들은 저희들을 처음부터 두려움에 떨게 하였고 저희는 정말 "과연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식과 "그래,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오자"라는 생각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정말 그 곳은 집집마다 사자가와 붉은 부처들을 붙여 놓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정말로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나라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또 자기와 관계가 없는 일이면 도무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곳곳에 깔려 있는 경찰들을 보면서 절망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저희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을 예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시고, 우상이 마을의 신이 되어 다니고 있는 곳에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보이셨습니. "열방의 우상은 은금으로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시 135:15-17).

그리고 그 땅에 찬양을 올리게 하시고 숨겨진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 인을 남기구나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또 그 일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왕상 19:18)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에게 "오빠 오빠"라고 부르면서 저희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따라다니던 아이들, 그리고 친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 주고 싶다고 저희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전도지를 가져가던 아이, 정말 어찌도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음성이 저의 귀에 선함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약할 때 감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희가 느끼고 지금도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저의 가슴 속에도 느껴집니다.

죄 가운데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살리시고 지금도 세상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길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왕 2:8). 할렘루!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으니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주님의 날이 임하길 기대합니다. 아멘.



김정민(대학부)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월 29일(목)-2월 10일(목)	대학부2	최준승	2월 2일(수)-2월 12일(목)	대학부8	박옥진
1월 29일(목)-2월 10일(목)	대학부3	홍진규	2월 2일(수)-2월 12일(목)	대학부9	이선동
1월 29일(목)-2월 10일(목)	대학부4	정용희	2월 3일(목)-2월 11일(금)	대학부10	하형철
1월 31일(월)-2월 8일(월)	대학부5	김중성	2월 4일(금)-2월 11일(금)	대학부11	여정호
1월 31일(월)-2월 9일(수)	대학부6	이흥수	2월 4일(금)-2월 12일(목)	2교구 주부	박용규
2월 1일(화)-2월 9일(수)	대학부7	전계식	2월 4일(금)-2월 12일(목)	청년1부	김원호
2월 1일(화)-2월 9일(수)	6교구 주부	김주식	2월 5일(토)-2월 14일(월)	찬양대	이경태
2월 2일(수)-2월 9일(수)	고등부1	오순도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2월 7일(월)-2월 12일(목)	고등부2	이보신	2월 10일(목)-2월 19일(목)	대학부14	김옥진
2월 7일(월)-2월 12일(목)	고등부3	구재현	2월 10일(목)-2월 19일(목)	대학부15	김현배
2월 7일(월)-2월 16일(수)	대학부12	이성범	2월 10일(목)-2월 19일(목)	대학부16	최준호
2월 7일(월)-2월 16일(수)	대학부13	윤용현	2월 11일(금)-2월 21일(월)	대학부17	윤해균

▶ 지난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1월 28일(화)-2월 4일(금)	대학부1	양승복	1월 27일(월)-2월 4일(금)	직원1	손정애

*오직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 주고 기도합니다. (선교기도회: 매주일 오후 4:00 / 길림교회)

금요집회 "천국복음"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회개했다

작년부터 천국복음이라는 주제로 있었던 금요집회,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다. 학교 다니느라 바쁜 때였지만 나를 이곳으로 이끈 큰 이유는 이 세상에서 어딜 가도 얻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도와 말씀을 멀리한 채 주님은 안중에 없는 삶을 살았을 때에도, 그래서 의욕도 없고 마음이 차갑고 황폐해질 때,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피곤해서 집에 그냥 있고 싶을 때에도 이런 나를 진정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다.

금요집회에서 선포되는 천국복음은 정말 놀라웠다. 금요집회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것들이 정말 많았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들의 내용이 나에게 큰 도전이 되었다. '야' 하면서 깨닫고 감탄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실 나의 '천국 개념'은 보통 사람들의 것과 거의 다름없었다. 그렇다고 죽을 후에 바로 천국에 간다고 믿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 이 땅에 살고 있거나 살아 있는 성도들만 천국으로 불려 올라가게 된다고 온연 중에 생각하고 있었나보다.

그런데 천국복음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과 동시에 사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은 그것보다 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처음엔 모르겠다가도 정리가 되면서 이 세대에서 저 세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이 내 머릿속에서 하나 하나 정리되었다. 혼자 성경 읽을 때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 과정을 깔끔하게 정리된 개념으로 가지게 되어서 진정 감사한다. 금요집회 때마다 미리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었고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불가시적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그림도 그려보았지만 시공간에 제한된 인간인 나로서는 상상할 한 뿐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 '비밀'을 알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다.

내게는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져 있다는 천국이 더 맘에 다가왔다. 죄도 없고 죽음도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깨끗한 그 천국의 능력이 바로 지금 존재한다는 것... 기적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 기적 속에 사는 삶이라는 사실은 나를 돌아보게 했고 정말 회개하게 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의 의무를 다하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야말로 참 행복이다.

'내 영혼이 온종일 입을 준한 죄 집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 495장).



윤은진(대학부)

2005년 단기선교 언어훈련 국가 및 장소

1. 언어 강의실

언어	강의실	언어	강의실
몽골	제1교육관 308호	방글라데시	제1교육관 303호
중국(내몽골)	분당 112호	캄보디아	제1교육관 307호
인도	제1교육관 201호	베트남	제1교육관 510호
러시아	제1교육관 407호	스페인(언어권)	제1교육관 509호
카자흐스탄	제1교육관 404호	동티모르	제1교육관 403호
우크라이나	제1교육관 202호	우즈베크	제1교육관 410호
루마니아(몰도바)	제1교육관 209호	영어(초급)	제1교육관 401호
불기리아	제1교육관 508호	영어(중급)	제1교육관 405호
이집트	제1교육관 505호		

2. 교육기간 및 일자 (매주일 오후 3:00~3:50)

차주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1강	2월 6일	4월 3일	6월 5일	8월 7일
2강	2월 13일	4월 10일	6월 12일	8월 14일
3강	2월 20일	4월 17일	6월 19일	8월 21일
4강	2월 27일	4월 24일	6월 26일	8월 28일
5강	3월 6일	5월 1일	7월 3일	9월 4일
6강	3월 13일	5월 8일	7월 10일	9월 11일
7강	3월 20일	5월 15일	7월 17일	9월 18일
8강	3월 27일	5월 22일	7월 24일	9월 25일

3. 수강내용

- 1) 선교언어 필수암기 25개 문항을 암기 및 발표
- 2) 현지어 찬양 2-3곡을 필히 암송
- 3) 1:1 전도 실습을 현지어로 반복
- 4) A형 전도지와 B형 전도지를 능숙히 읽기
- 5) 영점기도문 숙지 및 암기
- 6) 지리, 문화풍습, 기후, 국가통치체제 소개(10-15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열매5반 전아현이에요.

6살 땐 꽃반이었는데 7살이 되서 열매반이 됐어요.

열매반 언니가 되었으니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는 멋진 언니가 됐어요.

나는 주일에 교회에 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예수님이 기뻐하신대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현이가 되고 싶어요.

내 친구 지민이는 예수님을 모른대요.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같이 듣고 싶어요.

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해 달라고 기도할래요.

예수님은 꼭 들어 주시겠죠!



전아현(유치부)

아, 나는 죄인이구나!

이번 중등2부 가을수련회는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다. 맨 처음엔 별 기대감이 없었다. 지난 해 중등1부 수련회 때에는 기대를 했지만 은혜를 받지 못 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오게 될까 봐 기대를 하지 않고 왔다. 그런데 두번째 부흥의 때 깨달았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모두들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CMTC 훈련을 통해선 선교에 대해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번에 선교를 가게 되면 믿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할 것이다.

또 선생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 최송한 일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았다. 감사한 것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께 더 가까워짐을 느꼈다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예배를 성의 없이 드린 것이 한편으로 많이 부끄러웠다. 앞으로는 정말 노력해서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수련회 주제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일론'처럼 우리 모두가 천국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하은(중등2부)

설날 가정예배

아름 집이여 (설교문)

- ◆ 사도신경 다 함께
- ◆ 찬 송 364장 다 함께
- ◆ 대표기도 담 당 자
- ◆ 말씀봉독 이사야 46:3-4 다 함께
- ◆ 설 교 아름답게 인 도 자
- ◆ 찬 송 490장 다 함께
- ◆ 주기도문 다 함께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름의 집이여 나에게 들을지어다."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아름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는 어리석고, 거짓말쟁이며, 속이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들으라고 아름의 집을 부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최인과 가난한 자들이 그들의 말씀을 들도록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짧은 구절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을 드러내며, 그분의 심리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신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진실로 우리를 위대한 결말에 이르게 합니다. 육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연약해지지만, 은혜는 젊음, 건강, 그리고 활력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을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연약해져 갈 수 있습니다. 기억력, 상상력 역시 갈수록 생동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 어느 것보다도 영향을 즐겁게 합니다. 은혜를 통해 생긴 영원을 향한 확신은 마음을 지탱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약해질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이지만, 그와 동시에 천국도 가까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사랑을 잃고 황폐해져가지만, 그럼수록 우리의 달콤한 분향은 가까워집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 분향에 들어갔으며, 천국에 대한 열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애착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벗어버리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된 은총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자신의 음성을 들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를 새깁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보잘 것 없고, 초라해 보이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는 축복할 수 없는 위대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김성원 위임목사)

십자가 복음을 이어 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요즘 우리 시대를 물질만능주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이미 가족조차 단종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은총을 입은 충현의 가족들은 달랐습니다. 이미 작년도에 여러분이 본을 보여 주셨던 것처럼, 얼마 전에 소천하신 김동원 원로집사(16교), 김경희 은퇴권사의 남편)께서 남기신 유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천국일꾼 양성을 위한 장학금에 써 달라고 1천만 원을 현금하셨기 때문입니다. 현금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십자가 복음을 이어 갈 다음 세대를 위한 고인의 헌금이기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골 3:2). 세상의 보화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성도의 손길이 계속되길 원합니다.

다음 주일 찬송

491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휴스턴 그린(C. Houston Greene)이 1951년에 작사하여 같은 해 미국의 싱스페이션 출판사가 판권 등록했다는 것 외에는 이 찬송의 작시 동기가 배경에 관하여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이 찬송은 예수 안에 거하는 기쁨을 폭발시킨 찬송으로 후배들은 한 줄 건너마다 "난 주 안에 늘 기쁘다"의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1절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후렴은 주님이 나와 늘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라는 것을 말한다. 예수 안에 함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동행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맑기는 것이기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2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의 짐을 다 지셨기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쁜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기에 우리는 또한 기쁜 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된 것이다.

3절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남아 우리 삶에 더욱 감미롭고 귀하다는 것이다. 또한 익한 밭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더욱 기쁜 것이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다.

"죄가 다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 5:20b).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인이며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다. 그러나 주님이 새 생명을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한정위임목사)

새 · 가 · 록 · 을 · 한 · 영 · 합 · 니 · 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377	박성범	19	청년1부	이유미(19)	413	문현일	15	청년2부	김형조(17)
378	조우만	19	대학부	조지홍(2)	414	공영기	10	청년2부	안치원(1)
379	전성우	19	청년1부	유동호(3)	415	유진선	9	청년2부	정성영(1)
380	최도별	19	대학부	김현이(19)	416	김국분	8	청년2부	이유성(8)
381	장익	9	청년2부	정훈(1)	417	고영주	19	대학부	정종현(1)
382	강수진	19	중등부	유병수(2)	418	노윤관	8	청년1부	심학민(10)
383	김학민	19	중등부	유병수(2)	419	노승관	8	청년1부	심학민(1)
384	안원호	3	중등부	이재숙(2)	420	송덕환	19	대학부	조순연(12)
385	이진훈	19	고등부	장구환(7)	421	임소덕	3	청년2부	박석산(8)
386	전영도	5	장년3부	전성호(5)	422	권주희	9	청년2부	박영옥(4)
387	김태미	19	대학부	하다영(15)	423	최재순	4	장년2부	최민석(4)
388	박종신	1	청년2부	김희수(1)	424	이미지	15	장년1부	
389	기필도	1	청년2부	전승구(1)	425	이성훈	12	장년1부	주낙진(10)
390	조경만	19	대학부	김승혜(19)	426	최미연	19	청년1부	권영목(4)
391	이재범	19	청년1부	김재현(2)	427	황지을	10	청년1부	백승재(10)
392	홍수자	19	청년1부	강진위(4)	428	김진호	19	청년1부	최은영(19)
393	유은민	19	대학부	이영욱(7)	429	김기현	19	대학부	김국순(8)
394	김재건	19	청년1부	류기명(4)	430	백은태	19	대학부	김국순(8)
395	김효복	16	장년3부	양미정(16)	431	정영애	11	청년2부	박희숙(13)
396	이민숙	2	장년1부	조현규(1)	432	유아	19	외선부	조영규(6)
397	유재영	13	청년2부	최동석(5)	433	심영민	19	청년1부	김덕수(19)
398	이현진	1	청년1부	이수경(6)	434	홍경민	1	청년2부	박재운(7)
399	김정민	19	청년1부	이정혜(8)	435	김인규	19	대학부	이연희(18)
400	이준호	13	청년1부	이상해(2)	436	신영현	19	청년1부	이진규(6)
401	김종현	14	청년1부	한호철(14)	437	유창주	7	장년2부	이진규(6)
402	서은	19	외선부	이순주(19)	438	조재선	17	에배너부	이계옥(8)
403	자아	19	외선부	김선영(19)	439	최환민	19	청년1부	최대환(7)
404	바트도람	19	외선부	윤정진(14)	440	박기연	19	청년1부	유선덕(7)
405	올빼미로	19	외선부	김민철(1)	441	윤미	1	청년1부	조옥재(15)
406	나자	19	외선부	조규철(8)	442	김주희	19	대학부	이병희(7)
407	박진규	19	청년1부	김남현(14)	443	윤정진	9	에배너부	이성숙(4)
408	박진규	19	고등부	박예선(17)	444	김경일	8	장년3부	김진현(13)
409	이새별	3	고등부	오경희(13)	445	박경숙	8	장년3부	노영은(13)
410	김종현	2	고등부	김선주(2)	446	김우진	19	대학부	염혜설(15)
411	홍혜영	19	고등부	문경란(17)	447	이주연	19	청년1부	권영민(15)
412	한재현	19	대학부	이은총(8)					

* 총찬교회와 한 기가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23회 새가록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정답

1. 기도원 광고
설 연휴 관계로 기도원 집회와 찬
람 운행이 없습니다.

1. 안

- 일시: 오늘 15:00
장소: 1지회. 제1교육관 501호
2지회. 제1교육관 507호
3지회. 영아부실
4지회. 제1교육관 408호
2. 안수집사 2지회 부부기도회
일시: 18일(금) 22:30-02:00
장소: 충현기도원

별세

1. 조인수 성도 초대헌 집사, 조준현 성도의 부친, 이선향 집사의 시부, 12교구 호수구역 / 1월 21일 별세, 24일 장례
2. 강연년 씨 이경자 집사의 모친, 전 재인 성도의 장모, 3교구 청실구역 / 1월 23일 별세, 25일 장례
3. 임복녀 씨 안중집 집사의 조모, 김숙 집사의 시조모, 15교구 후석2구역 / 1월 23일 별세, 25일 장례

4. 김용주 성도 신병자 집사의 모친
이승득 안수집사의 장모, 1교구 /
월 25일 별세, 27일 장례
5. 조응주 성도 조남일 집사의 부친
손여 / 집사의 사부, 3교구 자양
구역 / 월 25일 별세, 27일 장례
6. 연관희 티교장으로 연순신 집사의 부
친, 장봉관 성도의 장인, 12교구 회
정1구역 / 월 25일 별세, 27일 장례
7. 박용근 성도 박정애 집사의 부친
이승연 성도의 장인, 3교구 개나리
2구역 / 월 26일 별세, 28일 장례

8. 이기훈 성도 최호삼 집사의 남편,
17교구 정자2구역 / 이길훈 성도의
부친, 박영익 집사의 사부, 5교구 /
1월 20일 별세, 31일 장례
9. 김덕섭 타교집사 김유자 집사의
부친, 김영길 집사의 장인, 6교구
석촌2구역 / 1월 30일 별세, 2월 1일
장례
10. 이윤희 성도 이계옥 집사의 모
친, 황선혜 권사의 시모, 6교구 선
수촌구역 / 2월 1일 별세, 3일 장례

◆ 2005년 제1차 청지기 훈련

1. 주제: 예수님의 기도 (눅 6:12)
2. 일시: 2월 18일(금) 오후 7:00
3. 대상: 모든 성도
4. 장소: 충현교회 본당
- ◆ **외선부 겨울수련회**
1. 주제: 주 예수를 믿어라 (행 16:31)
2. 일자: 2월 8~9일
3. 장소: 충현교회 (제1교육관 5층)

◆ 외선부 겨울수련호

1. 주제 : 주 에수를 믿어라 (행 16)
2. 일자 : 2월 8~9일
3. 장소 : 충현교회 (제1교육관 5층)

2005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2월 13일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최종철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강 훈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론 (김용덕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이희식 목사)	교육관 304호		
2월 20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임현덕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란? (하종철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란? (안지원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 답	교구별 장소	문 답	교구별 장소		
2월 27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 세례식(지역 찬양예배, 본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릴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7(월)	8(화)	9(수)	10(목)	11(금)	12(토)	13(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황의만	이경준/이상복	안창덕/박우현	안창덕/강만수	안창덕/조영구	정현민/윤인숙	김영훈/한영준

예배담당 안내 (2/9~2/13)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2/9	수소 I	여러 해 동안 주마나 (조선나 찬양대)	위경관	홍경숙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욥 2:12-17) 김성관 목사
2/10	수소 II	주님을 보았소 (실로암 찬양대)	정영진	권경자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눅 23:39-43) 박기인 목사
2/11	금요집회	비올라 이정림 소프라노 김지희 테너 이연진	이정준		김성관 목사
2/13	주일 I	(예배 전 찬양)	황진성	차신득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창 26:1-11) 손우일 목사
2/13	주일 II	주님 속 의생은 의/소프라노 윤진영(이벤트 찬양대 솔로리스트)	고광현	임두만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창 26:1-11) 이경춘 목사
2/13	주일 III	어느 민족속 의생과 의/트럼펫 조아문(레슬링부 오케스트라)	이관철	권영욱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창 26:1-11) 김성관 목사
2/13	주일 IV	참이대여호와 의 불을 권관(이벤트 오케스트라)	이종대	박익환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창 26:1-11) 장 호목사
2/13	주일 V	민왕의 왕녀 주께서 의 소프라노 최창진(이벤트 찬양대 솔로리스트)	이재정	윤석진	여러분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창 26:1-11) 정홍신 목사
2/13	주일찬양	헨드릭 바이어 별명 찬양대	이성연	전은혜	죄와 은혜 (롬 5:12-19) 김성관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수,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00	본 당
금요일집회	오후 7:00	본 당
새벽기도회	오전 2:00	본 당

구분	시간	장 소	구분	시간	장 소
영 아 부	1 오전 9:00 11 오전 11:00	선교관 1층	청년 2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층
영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청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영 처 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청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영 언 부	오전 10:50	교육관 3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망 부	오후 12:15	한림 집회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사 망 부	오전 11:00	복지관 지하1층
중 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801호	예배다부	오전 9:00(성인) 오후 1:00(청년)	교육관 207호
중 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탁 아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중 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5	메디나루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출생전이집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대 학 부	토, 월, 수 2:30	제2교육관 4층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출생전복리
청년 1부	오전 5:30	제2교육관 4층	국회의원의원사무	오후 11:00	아 매 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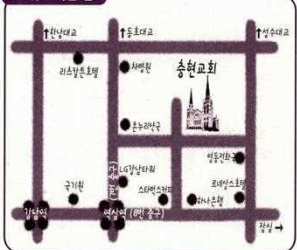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Ⅲ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Ⅳ부 예배는 소말리아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2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위임국사님의 시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욕되지 하여서 빚을 갚아주시고 다시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것이요 되게 하시며.
- ② 2005년 하나님께 쓰심받은 개천만 그릇이 되도록 충헌의 모든 청가지와 성도들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 ③ '예수님의 기도'(눅 6:12를 모든 충헌의 청가지들이 마음에 새기는 은사를 2005년 제과 청지기 윤관열 18월을 통해 부여하시라
- ④ CMTC 훈련과 전도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은혜의 안으로 자라가게 하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서 하나님의 기복한 전로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을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2월에 진행될 교회화교의 저를 계절학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천국문걸로 변화시켜 주소서.
- ⑧ 새가족들이 하나님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중생복자단이 십자가 복음의 열매로 되게 하소서.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으로

김정현	김은호	노광현	오해
고국영	고국영		
연일선	이 훈	남선우	김
이정우	정영민		
최귀걸	이창호	차진숙	김
정영민	7월부		
안종욱	이승우	이금경	전
이정우	16교장		
이정우	김단우	황영인	한
당영미			
김진기	유승철	이형수	안
62교장	122교장		
최희원	최국영	이계인	박
제3교장명칭	교과명	연영철	박
장태두	박용규	전영호	조
김영민			
김성태	이성호	최지영	노
61교장	204교장	101교장	
정철경	신상수	고재수	장
	142교장		
이달욱	정철환	김승문	함
	112교장		
조신현	연인철	김연경	김
63교장	52교장		

■ 부목사

2주대 전현민 신지현 이유진 2주대	전현민 신지현 이유진 2주대	박기인 이유진 이유진 2주대	류병호 이유진 이유진 2주대	김영훈 이유진 이유진 2주대
여국근 2주대	안창덕 2주대	나광영 2주대	전진호 2주대	김우현 2주대
고창환 2주대	유원강 2주대	김익현 2주대	장 훈 2주대	이유진 2주대
이희식 2주대	최종철 2주대	하준철 2주대	안치현 2주대	정성진 2주대
양승호 2주대	이성진 2주대	조규호 2주대	최성진 2주대	이재영 2주대
이재준 2주대	이정수 2주대	김준호 2주대	윤수민 2주대	황성진 2주대
정인영 2주대				

■ 여전도사

정연희 2주대	신동주 2주대	윤은진 2주대	한영준 2주대	김연식 2주대
홍순애 2주대	이옥주 2주대	김갑자 2주대	인애순 2주대	김정연 2주대
조옥자 2주대	강덕필 2주대	최문선 2주대	전희연 2주대	이유진 2주대
김갑자 2주대	이수경 2주대	김영희 2주대	이부연 2주대	류진희 2주대
한성임 2주대				

1327

■ 찬양감독 강임구

■ 전임독창자 김소연